

업계소식

건설산업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가 -

국토 해양부는 '건설산업 혁신 액션플랜'의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14일 건설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김종훈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경쟁력 강화"라고 지적하고 "건설산업이 스타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위원회 활동원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올해 안에 과업 마무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주도의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최초의 시도인 만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뛰어넘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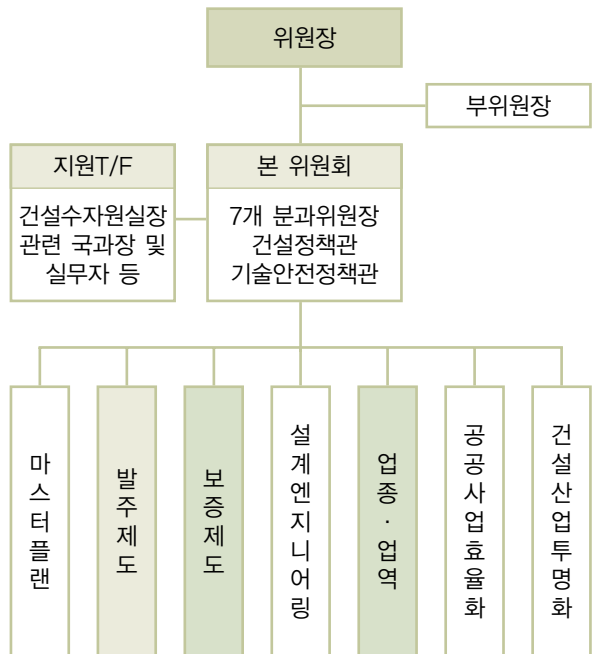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본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및 지원T/F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김종훈 위원장(한미파슨스 사장), 이규방 부위원장(한국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및 7개 분과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건설 정책관 및 기술안전정책관으로 구성·운영되고,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발주제도, 보증제도,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업역,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 7개 분과로 편성되어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6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지원 T/F를 구성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영·미 등 건설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혁사례, 전문가의 제언 등을 종합하여 금년 9월까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는 본 대책을 관계기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중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내이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조직



※ 우리협회 본회 최기원 이사가 업종·업역분과위원으로 참여.

업계소식

세부추진일정

시기	조치내용
4월4주	• 위원 선임 등 위원회 구성(민간주도)
5월3주	• 위원회 kick off meeting
5월	• 현행 제도 분석 및 영·미 등 선진국 제도개선 사례분석
6~7월	• 분야별 제도개선 대안 마련 • 민간 전문가 비공개 토론회
8월	• 제도개선 시안 마련 및 공청회
9월	• 對정부 건의안 확정
10월	• 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
11월	• 제도개선(안) 확정 및 법령 정비 등 과제별 Action-Plan 마련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위원	소속
위원장	김중훈	한미파스스 사장
부위원장	이규방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발주제도 분과위원회	이복남(위원장)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권오경	한미파스스 상무

위원회명	위원	소속
보증제도 분과위원회	유주현(중소종합)	신한건설 대표이사
	김재영(용역책임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민우(간사)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과장 (지원) 성호철 사무관
	박동규(위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박채규	경희대 교수(계약분야)
	이재영	GS건설 상무(종합건설업)
	최창호	대지중건(주) 대표(전문건설업)
업종·업역 분과위원회	김재인(용역책임자)	삼일회계법인 이사
	김성일(용역책임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정호(간사)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지원) 이용호 사무관
	박찬식(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호준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용석(대형종합)	포스코건설 경영기획그룹장
	소재철(중소종합)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신홍균(전문)	대흥에이스건설 대표이사
	최기원(설비)	삼건설비 대표이사
신동우(용역책임자)	한국건설관리학회	
최정호(간사)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장 (지원) 김태경 사무관	

본회 최기원 이사,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업종·업역분과위원회에 위촉

본회 최기원 이사(삼건설비(주) 대표이사·사진)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업종·업역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최기원 이사는 앞으로 업종·업역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비건설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비건설업계를 대변하여 위상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기원 이사는 그동안 건설선진화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설비건설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